

中國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GITIC) 파산 배경과 영향

- I. 머리말
- II. 신탁투자공사의 주요 업무
- III. GITIC의 자산·부채 처리 문제
- IV. 신탁투자공사의 구조조정과 중국경제에의 영향

I. 머리말

1997년 동남아 외환·금융위기 촉발 이래 중국 금융시장에서도 점차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1998년 6월 中國新技術創業投資公司和 海南發展銀行이 폐쇄, 청산되었으며, 동년 10월에는 廣東 國際信託投資公司(이하 'GITIC')가 폐쇄되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大連 국제신탁투자공사와 廣州 국제신탁투자공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등 잇따른 금융기관의 도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GITIC은 지금까지 업무 정지 명령을 받거나 폐쇄된 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破産法'에 의거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도산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여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파산법에 의해 GITIC이 처리된다면 이는 GITIC의 자산한도내에서 채권 순위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결국 채권 보전상 후순위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금융기관들도 GITIC의 채권 매입 혹은 GITIC의 보증을 통한 기업대출 채권에 대한 적기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신탁투자공사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겪을 수도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日本 國際金融(1999.3.1)에 실린 富士總合研究所 수석연구원 桑田良望씨의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의 破産處理問題'에 관한 글을 번역,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신탁투자공사의 주요 업무

1. 신탁투자공사의 발전 추이

중국의 신탁투자공사는 1979년 10월 ‘中國 國際信託投資公司’ 설립이 효시이다. 이후 각 상업은행들이 자회사 형식으로 신탁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10년 후인 1988년에는 754社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중 은행이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신탁투자공사는 454社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291社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설립한 것이다.

초기 신탁투자공사는 중국 경제의 분권화, 시장화 과정에서 지방 및 각 부처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중국 경제발전에 성장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증권 등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기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점차 부실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고금리로 차입한 단기자금을 중장기 프로젝트에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mismatch’ 현상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과도한 부동산 열풍에 편승하여 자금 회전이 어려운 부동산 건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1995년 이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대규모 부실자산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중국 금융당국은 신탁투자공사의 정리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 8월에는 그 수가 328社로 줄어들었다. 이후 신탁투자공사 수는 소폭 증가하여 1994년 말에는 391社가 되었지만 1995년부터 다시 금융기관 산하의 신탁투자공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1997년 말에는 244社로 줄어들었다(이중 전국을 영업범위로 하는 대형 신탁투자공사는 22社뿐이고, 나머지는 해당 소재지로 영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그리고 이러한 신탁투자공사의 정리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30여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신탁투자공사의 주요 업무

감독기관인 인민은행은 신탁투자공사에 대한 업무범위 및 최저 납입자본금을 정해놓고 있다(<표 1> 참조).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기관 및 기반 구축과 관련된 법률을 꾸준히 제정하여 왔다. 1995년 ‘人民銀行法’, ‘商業銀行法’ 및 ‘保險法’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證券法’도 가결되어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信託法’이나 ‘信託公司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중국정부가 기존의 신탁투자공사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나 업무 영역 조정 및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탁투자공사의 부실화는 인민은행의 감독관리 소홀과 함께 관련 법규의 미비 및 지방정부의 중앙부처나 인민은행의 관리 감독을 무시한 독자적인 업무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 신탁투자공사의 주요 업무 및 최저자본금 규모

구분	인민폐 업무			외화 업무
	수탁	운용	기타	
주요 업무	-신탁예금(1년 이상) ·기탁자는 정부, 기업 사회보험기금, 기타기금 등 -기업예금(6개월 이상)	-신탁투자·대출(기탁자가 운용처 지정) -일반투자·대출(기탁자가 운용처를 지정하지 않음) ·운전자금 대출은 투자선 한정 ·기타 일반기업 대출은 3개월 미만	-리스, 보증 등	외화신탁예금, 국외로부터의 차입, 해외채권 발행, 외화베이스 투자 및 대출 등
최저자본금	전국	1억 위안(외화업무는 1,500만 달러)		
	성급	5,000만 위안(외화업무는 750만 달러)		
	시급	2,000만 위안(외화업무는 750만 달러)		

자본금 가운데 외화베이스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신탁투자공사는 허가를 받고 외화업무를 할 수 있다. 외화업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전체 신탁투자공사의 약 절반이 외화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화업무 내용은 해외차입, 외화채권 발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모두 금융당국의 건별 허가사항으로써 자유롭게 외화조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탁투자공사의 외화조달에는 <표 2>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표 2> 신탁투자공사의 외화업무에 대한 규제

단기외화조달	- 개별 신탁투자공사에 대해 국가외환관리국이 한도 설정 - 단기차입금의 중장기 용도 전환 불가능
중장기 외화조달	-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國家計劃委員會의 상업차관이용에 대한 허가 필요. 개별 loan의 차입은 외환관리국에 등록을 조건으로 함
해외 채권 발행	- 인민은행의 허가외에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취득 필요. 다만,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國家計劃委員會의 상업차관 이용 허가 취득 필요
외화 채무보증	- 건별로 해당 지역 외환관리국의 허가 필요. 특히, 합자기업의 보증시에는 해당 지역이 아닌 국가외환관리국의 허가 필요 - 외화채무 보증 한도는 외화자본금의 20배 이내로 한정

3. 신탁투자공사의 자산·부채 현황

1997년 말 신탁투자공사의 대출잔액은 2,697억 위안(인민폐 대출 1,972억 위안, 외화 대출 725억 위안)이다. 이는 중국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7조 4,914억 위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약 3.6%에 불과하며, 國有銀行(人民銀行, 政策性銀行(3행), 國有商業銀行(4행), 交通銀行 및 中信實業銀行)의 대출잔액 5조 9,317억 위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타 중소규모 11개 상업은행의 대출잔액인 1,976억 위안보다는 많은 규모여서 이들의 연쇄도산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신탁투자공사의 자산부채 운용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신탁투자공사의 자산·부채 현황표
(1997년 말 현재)

항목	인민폐		항목	외화	
	금액(억 위안)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대출	1,972.16	62.20	대출	87.41	51.50
신탁투자	186.72	5.89	기타자산	82.30	48.50
투자	444.22	14.01			
증권	105.01	3.31			
리스	0.88	0.02			
기타	461.32	14.55			
자산합계	3,170.31	100.00	자산합계	169.71	100.00
부채	2,692.71	84.90	부채	145.88	85.90
자본	477.61	15.10	자본	23.83	14.10
부채 및 자본	3,170.31	100.00	부채 및 자본	169.71	100.00

자료 : 中國金融年鑑, 1998년판 106쪽

4. 신탁투자공사의 문제점

위와 같은 감독관리,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투자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높은 금리의 차입에 따른 고율의 대출금리 설정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점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한 점, 단기 조달자금의 중장기 프로젝트에의 투자에 따른 심각한 유동성위험에 직면한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6년 인민은행은 신탁투자공사의 전반적인 감사 결과 자본 부족, 높은 부실채권 비율, 위법 경영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파산위기에 놓인 신탁투자공사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처럼 신탁투자공사는 과거에도 몇차례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省政府, 市政府 산하 신탁투자공사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신탁투자공사가 기일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외국은행은 중앙 금융당국 혹은 지방 정부와 원만한 채무상환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중국측도 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한 신탁투자공사에 대해서 경영자 문책, 자본금 증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감독기관인 인민은행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커다란 손실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맡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인민은행이 금융기관들의 채무불이행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1996년부터였다. 1996년 ‘中國農村發展信託投資公司’가 채무에 대한 상환불능 상태에 빠져들자 인민은행은 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建設銀行이 인수토록 했다. 또한 深圳의 ‘中銀信託投資公司’도 폐쇄되어 廣東發展銀行이 인수하였다. 1998년 들어 금융기관의 잇따른 파산으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1998년 6월 ‘中國新技術創業投資公司’도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뒤 工商銀行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같은 달에 海南省 상업은행인 ‘海南發展銀行’이 폐쇄, 청산되었다. 그리고 10월에는 GITIC이 폐쇄되었다. 이처럼 업무정지 명령을 받거나 폐쇄된 금융기관가운데 破産法에 의거 처리되는 금융기관은 GITIC이 처음이다.

III. GITIC의 자산·부채 처리 문제

1. 대외채무의 우선변제 여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은행의 용자는 중국의 대외채무 관리대상으로 인정되어 차주가 외환관리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대외채무의 금액, 내용을 통제하고,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등록된 채무에 대해서는 인민은행이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외국은행은 전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작년 10월 GITIC 폐쇄 시점에도 인민은행의 관계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은행의 외화 채권은 인민은행이 우선 변제해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 GITIC 청산위원회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외국은행의 채권이 국내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 않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이를 보전하지도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 중국정부가 대외신용도 유지를 위해 GITIC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구제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많은 외국 금융기관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히 廣東省과 경제적 유대관계가 밀접한 홍콩 금융기관들의 불만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戴相龍 인민은행장은 지난 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하였다. “당초 GITIC을 폐쇄할 당시 개인예금과 대외채무를 우선 변제코자 함은 법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GITIC의 채무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준임이 드러나 국가외환관리국에 등록된 대외채무를 우선변제할 경우 국내 많은 기업에 대한 채무는 전액 상환받지 못해 국내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할 수밖에 없으며, 상환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

破産法에 따라 4월말 채권자집회가 소집되면 법원은 각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출자자인 廣東省 정부는 지난 1월 27일 廣東省 議會에서 금년도 재정은 행정관리비 지출에 대한 삭감폭을 더욱 확대하여 1999년 중국 재정지출의 5.5%에 달하는 자금(49억 위안, 약 5억 9,000만 달러)를 ‘金融危險 防止解消 準備金’ 명목으로 적립한다고 발표하였다.

1998년 GITIC은 기존의 채무 기일도래분에 대해서 해외에서의 기채, 신디케이트 론 등으로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면서 만기도래된 채무 연체가 누적되었다. 인민은행은 GITIC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청산을 결정하였다. GITIC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한 이유는 GITIC의 불법적인 경영도 한 몫을 하였다. GITIC은 분식결산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자금의 해외조달에 필요한 허가증 및 등기증의 서류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하에 그동안 정부 보증 방침을 철회하고 省政府의 책임하에 해결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廣東省 政府가 거액의 대손충당 관련자금을 금년도 재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省政府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GITIC의 채권채무가 최

종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청산될 것인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무래도 4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채권자집회가 열리기까지 금융당국과 청산위원회 및 채권자들간 조정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한편 올해 들어 大連국제신탁투자공사, 廣州국제신탁투자공사, 廣東華僑신탁투자공사 등 다른 투자신탁공사들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廣州국제투자신탁공사가 총 7억 4,000만달러에 달하는 대외채무 상환을 7월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다른 신탁투자공사들도 일단 만기도래되는 외화채무의 상환을 일시 중단하고,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투자공사의 대외채무 불이행은 단기적으로 보아 외국 금융기관들의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자제로 이어져 중국의 신용경색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신탁공사를 비롯한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인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해외신인도 개선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대외채무와의 관계

1998년 6월 말 현재 알려진 중국의 총외채잔액은 1,379억 6,000만 달러이다. 차주별 내역을 보면 <표 4>와 같이 외자계 기업이 차입한 금액이 432억 4,000만 달러로 가장 많지만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채규모도 404억 6,000만 달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신탁투자공사가 해외에서 차입한 대외채무는 금융기관 채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채무는 모두 등록된 것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만일 GITIC처럼 미등록채무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총외채잔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GITIC의 예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대외채무까지 감안한다면 총외채잔액은 현재의 규모보다 약 1.5~2.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4> 중국 총외채잔액의 차주별 내역

(단위 : 억 달러)

차주	정부기관	금융기관	외자계기업	중국계기업	기타
금액	379.9	404.6	432.4	145.3	17.4

중국정부가 공표한 대외채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채무, 즉 등록되어 있

지 않은 채무는 현행 외환관리제도상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화교환, 외화의 국외송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지은행 및 외환관리국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1998년 7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외화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외거래 방지를 위한 외화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미발표로 신탁투자공사의 총외채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지난 1월 27일 戴相龍 인민은행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탁투자공사의 수는 239社이며(1997년말 244社에서 GITIC을 포함해 5社 감소), 이들의 대외채무는 67억 1,800만 달러(보증 14억 달러를 포함하면 총 81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미 기일이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시일내 기일이 도래하는 채무규모는 약 20억 달러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IV. 신탁투자공사의 구조조정과 중국경제에의 영향

1. 향후 신탁투자공사의 구조조정 방향

현재 인민은행은 신탁투자공사의 채무지불 가능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신탁투자공사에 대해서는 증자, 자산 매각, M&A, 파산 등의 조치를 통해 정리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1997년말 기준으로 244개의 신탁투자공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신탁투자공사에 대한 정리작업은 더욱 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향후 신탁투자공사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방정부 및 은행이 출자한 신탁투자공사는 정부 및 은행과의 출자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를 민간기업화한다. 둘째, 생존가능한 회사와 도태되는 회사를 구별해 청산이 불가피한 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감히 정리한다. 셋째, 살아남은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 업무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자회사, 관련회사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모기업인 신탁투자공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도록 한다(GITIC은 중국내 150개, 해외에 135개로 모두 285개의 자회사, 관련회사가 있었음). 이러한 신탁투자공사의 정리방침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각 省·自治區·直轄市를 기준으로 한 1개 지역내 1개 신탁투자공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흡수통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탁투자공사 정리작업과 함께 신탁투자공사의 업무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과거 신탁투자공사 업무로 인정되어 오던 증권업무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신탁투자공사내에 증권거래를 취급했던 증권영업부(지사 포함)는 전국적으로 1,600여개가 있다. 1990년대 초반 중국 증권시장이 대호황세를 구가하면서 증권 중개업무를 통해 많은 신탁투자공사가 커다란 이익을 향유하였으나 올해 7월 證券法이 시행되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금융제도 개혁이 兼業主義 보다는 專業主義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이러한 신탁투자공사의 다양한 업무영역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점차 이관될 것이다. 즉 은행 자회사이거나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해오던 신탁투자공사는 은행에 인수합병되며, 증권업무는 증권회사에 이관함으로써 신탁투자공사는 자산관리, 투자은행, 신탁업무를 위주로 하는 신탁투자 위주의 전문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다.

2.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번 GITIC의 파산 처리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중국 경제성장은 1992년 14%를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하향추세를 보였다. 1998년에는 7.8%를 기록했고, 1999년에는 이보다 더욱 하락한 7% 내외를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의 경제성장률에 비교한다면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며, 특히 금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 지속, 미국·유럽의 통상압력 강화 등 국제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신탁투자공사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단행된다면 이들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투자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이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저한도의 경제성장률이 7%내외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금년도 성장률 목표를 하회할 경우,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내수시장을 부양시켜 경제성장을 꺾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실추이다. 과거 많은 서방 금융기관들은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를 강화해 나갔지만 중국의 금융기관

및 기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1995년부터 對중국 금융지원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방 금융기관들의 對중국 용자는 진출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서비스 및 투자은행의 알선 업무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 외국 은행 가운데에는 여전히 홍콩을 거점으로 적극적인 對中國 금융투자를 꾀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금번 GITIC 파산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朱鎔基 총리는 작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중국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외화관리, 대외채무 관리 강화 및 금융기관 감독관리 시스템 정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금융위험 방지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해결되기까지 서방 금융기관들의 對중국 투자가 예전처럼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 改革·開放政策의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이다. 朱鎔基 내각의 금융개혁 핵심은 시장경제에 적합한 금융제도 확립과 신용위험 불식을 위한 강력한 감독관리체제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이다. 현재 신탁투자공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급한 대안 마련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화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GITIC을 비롯한 여타 신탁투자공사의 해결과제는 금융시장의 개혁 문제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신탁투자공사의 구조조정이 잘못 처리될 경우, 외국금융기관들이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꺼리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화로 중국 경제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위안貨 절하압력이 더욱 고조될 것이고, 이는 아시아경제 회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금융시장의 투명도를 제고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금융기관 파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全善俊】